

일주일 소요 원가계산 이틀만에 해결

한국솔루션 ‘C-KORS’ 인기몰이
자동차·전기업계 도입 크게 늘어
시스템으로 산출해 분석시간 줄여

한국솔루션(대표 표영대)의 원가관리솔루션인 ‘C-KORS’가 자동차·전기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솔루션은 주요 자동차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를 비롯해 수·배전반기업인 K사, 전자부품기업인 Y사, 엔지니어링기업인 A사에 잇따라 원가관리솔루션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기업이나 삼성전자 등 주요 전자기업 1차 협력사 문의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도 한국솔루션의 원가관리솔루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솔루션의 C-KORS가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견적서를 내는 데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수·

배전반 원가계산을 이틀 정도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배전반은 적게는 수만개에서 20만개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주문 후 견적내는 데만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 고객이 주문하면 원가관리솔루션으로 원가를 산정해 경상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가능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엑셀로 원가를 산정하지만 C-KORS는 부품 표준화 데이터베이스(DB)가 들어 있어 시스템으로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원가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표영대 한국솔루션 사장은 “C-KORS는 원가가 배부되면 상황을 트래킹해 월별로 원가가 물리는 분야를 분석하고 해당 기간 관리 손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인건비나 자재 등 원가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표 사장은 “원가관리솔루션을 도입하면 인력이나 설비 등에 왜 비용이 들어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

요한 솔루션”이라고 덧붙였다. C-KORS는 생산과정에서 투입하는 노동력·자재·장비 등 모든 자원을 원가분류 기준으로 정의하고 원가를 공장이나 부서 같은 사업단위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연결해 제품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산정, 평가한다. 특히 수주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아이템 체계로 표준 조제원단위(BOM)와 표준라우팅(표준가공비)을 설정하고 생산 레벨별로 표준원가계산을 하고 매일 작업지시건별 실적원가와 원가차이를 계산해 총계정원장(GL)에 연결하고 현장에 제공해 일 단위 원가계산을 가능하게 했다. 표 사장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원가 산출이고 제대로 된 원가를 내는 곳은 드물다”며 “주문을 받더라도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가관리솔루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보안, 데이터복구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소프트메일 연구원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문화·예술에 보안 백신 접목해 대중화 이끌어

최고를 향해 쫓다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DB 실시간 업데이트 자랑
SI기업·이통사와 신규시장 진출 추진

소프트메일(대표 오봉근)은 정보기술(IT) 솔루션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이메일 관련 솔루션과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주력사업 분야다. 이메일 솔루션은 MS 익스체인지 이메일 서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아이스워프(IceWrap)’ 이메일 서버를 공급하고 있다. 고객사가 3000곳에 이른다.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은 세계 1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제품인 ‘어베스트’다. 최근엔 백신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해 대중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프트메일이 국내에 어베스트 백신을 선보인 것은 10년 전이다. 지난 6월에는 도입 10년 만에 국내에서 100만 사

용자를 돌파했다. 2년 안에 200만 사용자 돌파라는 야심찬 목표를 잡았다. 문화와 백신을 융합함으로써 백신을 영화나 콘서트처럼 생활 속의 문화로 인식시켜 대중화하겠다는 포부다. 오봉근 소프트메일 사장은 “어베스트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와 정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특정 기관 인증이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인증했다는 점에서 신뢰 수준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신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은 얼마나 빨리 새로운 악성코드에 대응하느냐다.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환경에서 악성코드는 근원지와 상관없이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코드를 해결하려면 세계 전 지역에 레이더와 같은 안테나를 촘

촘히 세워야 하는데, 다른 아닌 어베스트 사용자가 안테나 역할을 병행하는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이더 탐지기를 갖고 있어 새 악성코드를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어베스트의 바이러스 DB는 3~5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될 정도로 실시간 처리된다.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안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사물인터넷이나 로봇을 활용한 교육산업 등 새로운 시장은 보안문제가 뜨거운 각자다. 소프트메일은 이 분야 진출을 위해 대기업 SI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외시장에도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다. 오랫동안 베트남 시장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가시적인 성과와 연결되지 못했지만 올 들어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기술회사 아닌 기술 마케팅 서비스 기업 지향”

오봉근 사장

“소프트메일은 기술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서비스기업을 지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에 마케팅을 파는 기업입니다.” 오봉근 사장은 “제품으로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으로 혁신을 구현하려고 한다”며 “가능성 있는 제품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는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새로운 제품으로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해외에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는 제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외면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소비자와 시장을 연결하는 고리가 잘못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 사장은 “경험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이해하는 우리만의 방법을 갖고 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 제품을 발굴해 성장곡선에 올려놓기도 했다”며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공급자 중간에서 가치를 발굴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은 백신과 이메일 솔루션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군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사장은 “회사가 성장하려면 직원이 행복해야 하고 직원이 행복하려면 회사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본인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야 한다”며 “직원에 명령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섬유산업과 이업종간 교류 활성화 세미나

경기중기지원센터, 내달 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섬유산업과 이업종 간 교류·융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중기지원센터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북부 지역 특화 산업인 섬유 및 가구산업과 IT·자동차부품·의료기기·생활용품 등 이업종 간 기술과 아이디어 상호 교류 및 융·복합을 모색한다. 문철환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이 ‘섬유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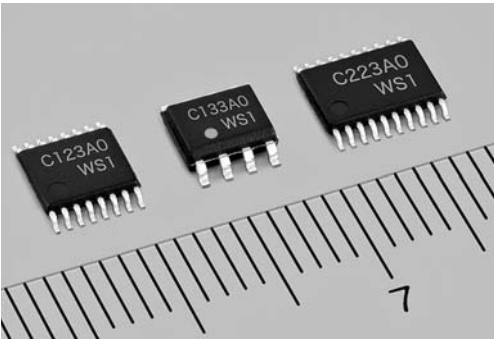
과 타산업의 융합연구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김주용 송실대 교수는 ‘국내외 섬유제품과 타 제품 간 융합현황’을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섬유·자동차·가구·디스플레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패널이 섬유·이업종 간 융합 필요성 및 촉진 기반 조성 △융합제품 비즈니스 모델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대기전력 최소화 ‘전원IC’ 상품화

르네사스, 내장 다이오드 줄여 소형화·구축비용 절감 가능

일본 시스템반도체기업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대표 사쿠타 히사오)는 대기전력을 DC/DC컨버터 칩당 100μA수준까지 낮추는 전원 IC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르네사스가 이번에 선보인 전원IC는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OA·가전·네트워크·스마트그리드 등 대기전력을 낮춰야 하는 시스템과 정전 시 백업이 필요한 시스템에 사용된다. 이 제품은 저전력 모드와 배터리 백업 기능을 내장하고 DC 12V에서 전압 강하에도 대응한다.

르네사스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시스템온칩(SoC) 등과 더불어 시스템 저전력화와 소형화를 보다 간단하게 실현하기 위해 전원설계공수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전원체통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전원IC를 ‘간단전원IC·사진’라는 애칭으로 제품화했다. 간단전원IC는 시스템 대기 시 저전력모드가 켜지면 독자 신기술인 ‘오토 PFM모드’에 들어가 DC/DC컨버터 1채널당 작게는 100μA까지 소비전류를 억제한다. 또 시스템 입력전원이 차단되면 새로 내장한 배터리백업 기능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다이오드 2개를 줄일 수 있어 시스템 구축비용을 20%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형화도 가능하다. DC/DC컨버터 2개를 패키지와함으로써 전원부 부품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용을 25% 줄일 수 있고 소형화할 수 있다.



르네사스는 간단전원IC를 이달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샘플 출하한다. 양산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4월에는 월 150만개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르네사스 관계자는 “최근 시스템 저전력화와 소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간단전원IC를 적용하면 저전력화는 물론이고 소형화와 비용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르네사스는 내달 2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 도쿄에서 개최되는 ‘르네사스 디벨로퍼스 콘퍼런스 2014(Renesas DevCon Japan 2014)’에서 간단전원IC를 비롯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르네사스 간부의 기조강연과 르네사스 최신기술을 소개하는 솔루션세미나·솔루션전시·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아주대, SW 영재 양성 프로그램 신설

60명 모집 내년 1월부터 교육

아주대학교(총장 안재환)가 소프트웨어(SW) 영재교육에 나선다. 아주대는 과학영재교육원에 21세기 언어인 SW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한 ‘SW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27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영재학급(또는 영재교육원)을 수료하거나 수료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SW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SW 인재 저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교육은 2015년 1월부터 시작한다. 아주대는 총 60명을 모집,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여름·겨울 집중교육과 온라인교육을 포함

해 총 130시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교육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SW 영재 발굴 및 양성을 목표로 스팀 기반 학습 △산업 현장 방문 및 전문가 특강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한다. 프로젝트 활동은 △컴퓨터로 배우는 재미있는 세상 △창의적 로봇 만들기 △수학적 표현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 △스마트의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등 흥미를 끌 수 있는 주제별로 총 10개 모듈로 구성했다. 교육에는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와 미디어학과 교수진을 비롯해 영재교육 경험이 풍부한 초·중등 교사가 참여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아드반테스트, SSD 테스트 장비 공급

일본 아드반테스트(대표 마쓰노 하루오)는 주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업체에 테스트 시스템인 ‘MPT3000·사진’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MPT3000은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Gen3 및 NVMe(Non-Volatile Memory express) 등 고속 인터페이스 엔드프라이즈용 SSD 테스트에 사용하는 장비다. 아드반테스트 관계자는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SW), 신속한 시스템 구축, 글로벌화한 지원체제 등이 아드반테스트 제품을 선택하는 포인트”라며 “특히 MPT300은 고객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공기 단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드반테스트의 MPT3000은 최첨단 시스템 온칩(SoC) 테스트 기술과 전용 하드웨어 가속기 및 12μs 신호 성능을 결합해 SSD 테스트 시장에 고효율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멀티 프로토콜 기능으로 하프 및 전체 크기의 PC카드, 2.5



인치 드라이브, 커스터마이징한 드라이브 등 다양한 형태의 SSD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다. 주문정기자 mijoo@etnews.com

JST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김현준 고영 사장

인천시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한 제5회 JST 창업경진대회에서 ‘렌즈 교환장치를 겸비한 DSLR 카메라용 퀵 스트랩’을 출품한 김현준 고영 사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상룡)은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해 온 제5회 JST 창업경진대회에서 김현준 사장이 89대 1의 경쟁을 뚫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사장이 출품한 ‘렌즈 교환장치를 겸비한 DSLR 카메라용 퀵 스트랩’은 카메라 거치용 퀵 스트랩에 고영의 특허 신제품인 렌즈 홀더를 장착한 제품이다. 렌즈 거치의 불편함을 줄여 카메라

와 렌즈를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다. 고영은 이 제품을 발판삼아 올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사장에게는 195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향후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2014년 대한민국 창업리크 본선 진출권을 제공한다. 본선에서 우승하면 상금 1억원과 투자유치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최우수상에는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 마인드맵 교육 앱 시스템’을 내놓은 이주환 지니어스팩토리 사장이 선정됐다. 두뇌학습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글자와 그림, 영상과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학습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제품이다. 최우수상에는 1550만원을 지원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